

‘죽음의 강’ 영산강 해수 유통으로 생명 불어넣어야



“강물은 흘러야 한다” 바닷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산강어귀에 쌓은 하굿둑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8일 영산강 하구 수질·생태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지난 1981년 완공 이후 35년여 만에 하굿둑 개방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의 ‘생명의 젖줄’ 영산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영산강 하굿둑 수문 개방이라는 주장이다.

◇“영산강 살리기, 하굿둑 개방이 해법”=영산강 하굿둑은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사이의 영산강 하구를 가로막은 방조제다. 지난 1981년 완공됐다. 국내 최초의 하굿둑으로 길이는 4351m, 높이 20m다.

영산강지구 종합개발계획 2단계 핵심사업으로 독에는 8개의 배수갑문이 설치됐다. 당시 정부는 하굿둑 건설로 영산강 하구 일대에 207㎢의 농경지가 생기고 영산호가 만들어져 5만6000t의 쌀을 생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갯벌 등 강 주변에 32.5㎢에 달하는 새로운 농경지(간척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35년이 흐른 지금 당초 하굿둑 건설의 배경이 된 식량 증산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쌀 과잉생산이 해마다 반복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남아도는 쌀마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수질 문제 또한 심각한 상태다. 하구둑 건설로 영산강이 막히면서 강물이 고인데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승촌보·죽산보로 인해 영산강이 죽음의 강이 돼버렸다.

영산강 하굿둑 35년만에 개방 추진

썩은 강물에 승촌보·죽산보...생명의 젖줄 기능 상실

개방 댐 영산호 대체 용수 확보·지하수 관리대책 시급

이 때문에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는 홍수 통제 목적으로 드물게 이뤄지는 영산강 하굿둑 수문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강물과 바닷물이 수시로 만나게 하자는 것이다. 전남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으로는 영산강 하굿둑을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송수 전남대 교수(지구과학부·퇴직학 전공)는 “바닷물 유입이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전 교수는 “하굿둑 수문을 항상 열어놓고 바닷물과 민물이 수시로 교차하게 하면 수질 오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농가 피해 등을 고려, 연중 수문을 상시 개방하다가 해일 예보 등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만 닫아둬 하굿둑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미래를 위해선 하굿둑 자체를 허물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금강도 하굿둑 수문 개방=낙동강과 금강은 해수유통의 첫 발을 내디뎠다. 부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낙동강 기수역(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공간) 회복 협의체를 꾸려 단계적으로 바닷물과 강물을 만나게 해 낙동강을 살린다는 전략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9월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 터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하굿둑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60종에 달하던 어종이 30종으로 감소했다. 또 강물의 정체로 녹조가 번식하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낙동강 완전 개방에 앞서 사전 작업으로 염분 침투로 피해가 우려되는 취수원을 지난해 말 이전했다. 식수원도 이전 또는 정수시설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도 지난 2015년 금강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

난 2015년 금강 복원 연구용역에서 수질 악화, 수산자원 감소, 폐업전 방지,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나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를 토대로 충남도는 복원대상 하구로 보령호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금강 하구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질 개선을 통한 생태환경 개선, 습지 복원을 통한 수산자원 증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구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해수 유통을 위한 선결 조건=수문 개방은 바닷물 유입을 의미한다. 영산강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는 생활·공업·농업 용수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산호의 대체 용수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지하수 관리 대책도 세워야 한다. 지하수에 해수가 침투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탓이다. 또 바닷물 유입에 따른 급격한 민물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 바닷물이 드나들면 간척지는 사라지고 그 곳은 갯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척지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 대한 토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반대로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영산강 퇴적물의 바다 유입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부대 수영장 증축 장성호 관람석 확충



광주세계수영 2년 앞으로

〈중〉 준비 어떻게 되거나

염주체육관 등 경기장 개보수 선수촌 송정주공 재건축 한창 숙박·수송·물자 준비도 박차

2019 세계수영대회 개최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이하 조직위)가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성공 대회를 위한 기본 요소인 경기장 개보수 및 선수촌 건설, 임원 등을 위한 숙박과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회 지원 물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 경기장 건설 최대한 억제=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성 높은 대회를 치르기 위해 신규 경기장 건설을 최대한 줄였다. 또한,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국제수영연맹(FINA)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관람석 규모를 주경기장의 경우 당초 1만 5000석에서 1만1000석으로, 나머지 경기장은 5000석에서 3000석으로 축소했다.

경기장은 모두 5곳으로,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과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열리는 장성호 경기장은 관람석 확충 등 개보수를 통해 사용된다. 현재 3290석의 관람석을 갖춘 남부대 수영경기장은 1만1000석 규모로 증축되고, 향후 운영실 확장과 함께 다이빙 지상훈련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장성호에는 새롭게 2000석 규모이 관람석이 마련된다.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염주체육관)과 수구 경기장(진월테니스장), 하이다이빙 경기장(광주시청 문화광장) 등 3곳의 경기장은 사업비 절감과 사후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임시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건축 통한 선수촌 건설로 비용 절감=수영대회 선수촌은 도심의 노후 아파트인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송정주공아파트는 오는 2019년 3월까지 모두 1660세대 규모, 지상 15~25층 25개 동의 선수촌으로 건립된다. 대회 기간 중 65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계획이다.

선수촌은 후보지 공모를 통해 송정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8월 중흥건설과 선수촌 건립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말까지 기존 아파트 76개동 962세대에 대한 이주 및 철거가 완료돼 2월부터 선수촌 건립 공사가 시작했다. 이달 말 현재 터파기 공사가 85%의 공정(총 공정률 4.8%)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선수촌 아파트는 대회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6월말까지 내부 임시 마감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된 뒤 7월 초부터 입주에 시작된다.

◇대회 지원분야 준비 나서=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숙박·수송·물자 등 대회 지원 분야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숙박은 크게 세 그룹(선수단, FINA 패밀리, 미디어)으로 나눠 각각 선수촌, 본부호텔, 미디어촌 배치를 기본으로 준비중이다. 전체적 숙박 물량 확보를 위해 대회 개최 1년 전인 2018년 6월까지 사용 대상 숙박업체를 선정하고 협약할 예정이다.

수송분야는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 1월에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된다. 대회 신분 증명(D)카드 또는 선수권대회 경기관람 티켓을 소지한 참가자에게는 대중교통 무료사용도 검토 중이다. 또한 출입국 통관절차 기준을 마련, FINA 승인 후 하반기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물자분야는 다른 대회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물자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물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출전 선수들에 대한 의무 도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년연속 우수축제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23년 정남진 강으로 별강을 둘러라

2017. 7. 28. 금 ~ 8. 3. 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Jeongnamjin Jangheung Aqua Festival

7. 30.(토) ~ 8. 3.(목)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강진청자축제장 연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2017년도담사기변제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 2017, KOREA

Imagine your Korea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2017. 7. 29-8. 4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청자할인판매] 2017. 7. 28. ~ 8. 6. (10일간)

The 45th Gangjin Celadon Festival 제45회 강진 청자축제

흙, 불 그리고 사람